

한국의 건축가—정인국(4)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
한국성의 모색 시기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il-Ryong

1. 모더니즘의 시대인

정인국이 갖는 한국 건축에서의 가치, 이복에서의 소년기, 일본 유학기, 넓은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2. 학자 건축가 정인국

홍익대학교에서 건축 교육, 신건축문화 연구소, 모더니즘의 시기, 강명구·엄덕문·김중업과의 조우, 건축가협회장

3. 정인국의 지적 중흥기

한국적 모더니즘의 변이, 제3세대, 제3세계 건축에 주목함, 강의실에서 만남, 서양건축사·근대건축론·현대건축론에서의 시대관

4. 한국성의 모색

민족박물관의 교훈, 문화재 위원, 한국 건축 원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 목조건축양식론」

5.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UIA 총회,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병환

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시대, 경제진흥에 힘입어 어느정도 건설경기는 형성되지만 197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건축의 문화적 의지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이었다. 일제와 전쟁 공간에서 건축문화가 피폐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20년간의 시간을 의식 없는 생산으로 소모하였던 것이다. 물론 식민지시대의 이식(移植)문화나 60년대의 국제주의의 맹종도 자의적인 것은 아닌 것이었다. 한국의 모더니즘은 그 나름대로 한정된 재료, 시공 등의 기술적 부분의 한계 안에서나마 독특한 전개와 모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전히 막연하고도 자폐적인 이해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즈음에 전통의 의미와 실천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건축계는 깊이 잠겨 있던 자의식에 눈뜨게되는 동기를 갖는다. 아마 이러한 문화 인식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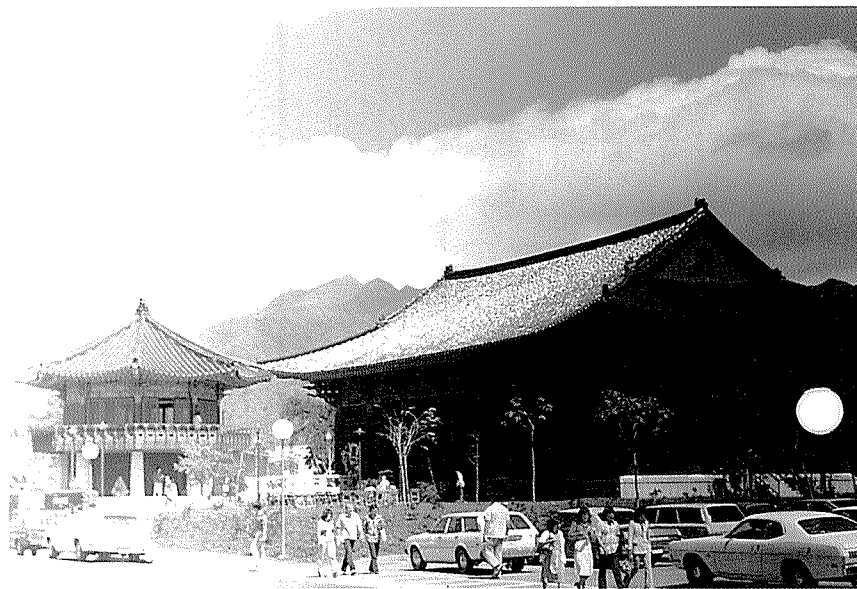
근대건축이 생성된 이후 처음 갖는 문화적 자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한국성의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표현적 경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더니즘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체화하여 본 건축적 개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이라는 문화적 자의식이 스미는 즈음에 두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는 김수근에 의해 1965년에 계획된 국립부여박물관에서의 왜색(倭色) 시비이며, 다른 하나는 1966년의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경복궁) 현상설계에서 발발된 전통의 왜곡이다.

통의 왜곡이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제와 시대정신에 관한 정인국 교수의 입장을 읽기 전에 이 두사건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종합박물관 현상설계

1965년, 정부는 부여에 국립박물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설계가 김수근에게 맡겨진다. 김수근은 뛰어난 콘크리트의 가소적 솜씨를 가지고 이 고도(古都)의 건축을 완성하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건축계는 이 디자인을 왜색의 은영(隱映)이라 하며 냉소적인 비평을 보인다. 그 물증으로 이 건축의 외관에 잠재되어 있는 일본의 전통 양식인 '치기千木'의 형태가 들어대어졌다. 특히 김수근의 수학과정이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완성되었다는 선입감도 작용하고 있었다.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김수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개념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는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1966년 1월 8일에 공모되어 강봉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는데, 문제는 주최측의 공모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역사건물을 모사하여 표현이 가능함을 유도하는데에서 비롯된다. 당연히 건축계는 이와 같은 조건이 작가의 창의성과 전통성에 배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축문화를 퇴행시킨다는 이해로 거세게 반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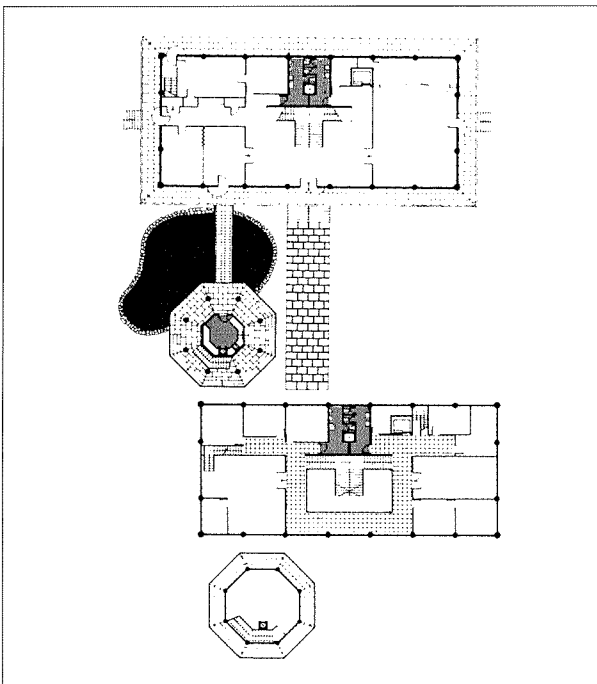
논란은 주최측 주변의 '경복궁이라는 장소성과 재구성도 창조의 일환'이라는 이해에 대해 '복제의 작업이 창조가 아닌 한 그 프로그램은 문화적 퇴행이며 전통의 몰이해'라는 건축계의 의견으로 대립되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 건축은 배치를 재조정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어 1966년 11월에 착공되어 1968년에 완공된다. 심사위원의 한사람이었던 정인국 교수는, "현재까지 한국의 실정으로는 현상설계에서 어떤 작품이 선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건축적 소신의 공약수가 기준이 되느니 보다 건축주의 의도가 더 강하게 반영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이번 경우 주무차의 현대건축가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고건축에 대한 무한한 동경은 작품선정에 지배적 영향을 주었다."¹⁾고 술회했다.

그러나 당시 자문위원이기도 하였던 정인국 교수는 이 현상설계에서 간접적이거나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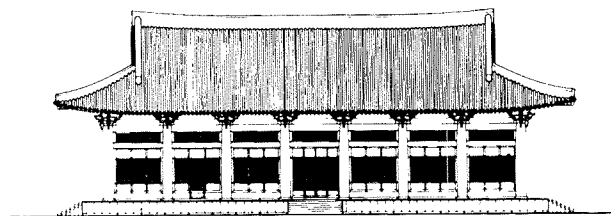
1975년 정인국 교수는 한국건축의 전통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다. 이미 1960년부터 현대건축에 있어 한국성과 전통의 문제를 위한 여러 실과는 그 적부성을 떠나, 구현시켜본 경험이 있으나, 이에 대한 논리와 의사교환의 기회가 드물었던 것은 당시의 빈약한 토론문화를 말하기도 한다. 정인국 교수는 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²⁾에서 그즈음 우리 시대의 전통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지진하여 왔는가부터 비판이 시작된다. "自主 獨立 直後의 政治的 混亂狀況에

서 政治的 安定으로 향하는 道程에서는 別로 建築文化面에서 불만한 理論活動이 없었던 이유이고, 둘째로 너무 갑작스럽게 이때 기세를 떨치고 있던 國際建築樣式이 우리나라를 휩쓸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돌이켜 볼 餘裕가 없었던 것, 셋째로 다른 藝術分野에서는 解放前부터도 계속 民族運動의 一環으로 소위 抵抗文化運動의 성격을 띤 藝術運動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고 보여 지는데 비해 建築文化活動에서는 官僚로써 혹은 隱遁으로서 처세한 몇몇 建築家가 있을 뿐 別로 이런 면에서 傳統意識의 氣脈을 이어 내려오지 못한 때문이다."

상당히 당시 건축계의 사회논의 부재를 시니컬하게 말하며, 전통론이 대두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外部的 要因으로서 現在 世界의 建築潮流가 그러한 狀況에 놓여 있는 점과 内部的 要因으로는 우리나라 政治經濟 社會條件이 必然的으로 民族的 自覺意識을 성숙케 하게끔 이끌어온 점이다.' 다시말해 우리의 건축환경은 비로서 국제적 동태와 내적의식을 동조시킬 시점에 있다고 함이다. 그러면서 그는 E.N.로저스의 말을 통해 현대건축 창조에서 역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불가능한 건축요소이며 역사성이란 현대까지 포함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韓國建築 發展에 致命的 影響을 준 것은 이러한 歷史的 連續性이 斷絶된 狀況에서 作業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아마 그는 다시 1965-66년의 傳統과 國粹의 혼돈으로 불편하였던 사회논쟁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지 모른다. 그는 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건축문화의 특질을 말하는데, '첫째 西歐建築文化는 우리의 歷史的 文化的 遺産의 累積된 過程과는 絶緣된 文化이며, ... (중략) ... 西歐建築文化와 韓國建築文化는 전혀 이질적인 문화이다 ... <새로운 것>, <올바른 것>이라는 相關關係를 打破하여 단지 過去와 訣別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항상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여 世界建築과 調和시킬 수 있는 哲學 貧困이 특징이다 ... 移植文化로서의 事大性이 농후하다 ... 日帝統治下에서 우리 땅에 옮겨 놓은 建築은 두말할 것 없지만, 그 후에도 移植된 表現뿐이고 先進國의 건축을 散策式으로 模倣하는 傾向은 歷史가 많은 近代建築의 導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겠지만, 더 큰 病弊는 事大性을 탈피 못한 점이다.' 매우 자조적 일만큼 당시의 건축가의 양태를 비판하며 그는 1965년도의 전통 논의마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끌지 못한 건축계를 섭섭히 말한다. 그나마 그동안 전통의 구현을 위해 표시된 방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와이 한국학센터 평면도



하와이 한국학센터 입면도

1) 정인국, 국립중앙박물관 설계에 연관해서, 공간 1967년 2월호, p. 12.
2) 대한건축학회 / 1975년 9월호

① “所謂 韓國의 멋을 傳統表現이라고 보고 抽象的인 觀點으로 삼는 態度 흔히 哀傷의 情味, 環境과의 調和, 人間的 스케일 등 抽象的인 文句로 韓國文化의 特色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과 같이 無意味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韓國文化時期에도 哀傷과 靜寂이 깃들여 있었던 때와 歡樂과 躍動이 넘치던 時期도 있고 順天의 理로 環境의 調和를 꾀한 時期도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逆天의 理로 自己를 두드러지게 내세운 時期(古新羅時代의 一塔式 伽藍과 같이)도 있었고 또 人間的 스케일이 韓國建築文化의 專賣特許가 될 만큼 高유의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근본적으로 전통에 소극적인 모더니스트들 중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당시의 건축의 장르들, 예를 들면 미술, 역사계가 건축계에 던지는 고언이기도 하였다. 정인국 교수는 여기에서 역사양식의 역동성을 강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기성으로 진도한다는 것이다.

② “韓國의 古典建築을 어떤 方法으로든지 디포메이션의 作業을 거쳐서 創作의 方法으로 삼으려는 態度, 이러한 態度는 傳統表現의 初段階에서 의례히 거치는 過程이다. 이런 過程을 거치는 동안 新舊의 갈등은 辨證法的 止揚으로 일단계 진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창작이 생기게 된다.” 정인국 교수는 이 방법을 타협적 유효성으로 본다.

③ “전통建築과 모더니즘과의 調和를 裝飾手法의 限界에서 意圖하고자 하는 消極的 態度, 이것이야말로 가장 可憎스러운 方法이다. 建築의 發展은 建築의 本質에 대한 變革없이 附加된 性質의 하나밖에 안되는 裝飾만을 취해서 시도한다는 것은 전연 무의미하다.” 그는 건축의 修飾的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 강한 거부를 뜻한다.

④ “形式上 또는 表現上의 傳統追求는 無意味하며 社會的 與件이 變化한 오늘에 있어서는 內面的인 精神上의 作業過程으로 보려는 態度, 여기에서 〈精神上〉이라고 하는 것은 漠然한 精神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人間의 精神을 指稱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自體도 결국은 建築行爲에는 제일 먼저 人間生活이 깔려 있고, 行爲의 主體가 人間이기 때문에 그 人間이 韓國人이라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精神問題도 자연 어떤 種族的인 것 또는 人間性 또는 文化形成圈 속에서 얻어지는 韓國의 表現으로 歸着된다.” 그는 전통의 표현 문제역시 건축적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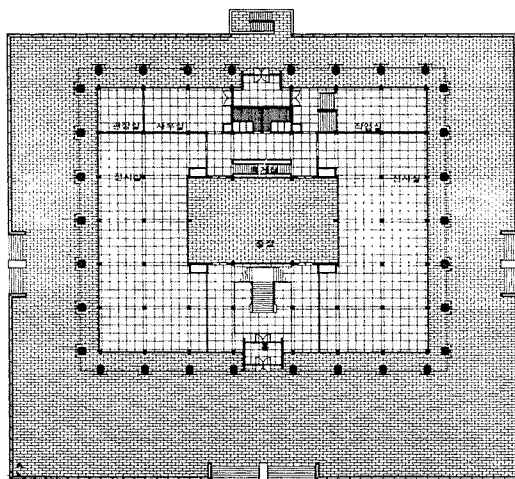
얼리즘으로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정인국 교수는 한국의 전통표현에 있어 그 원리적 방법론을 위해, “世界 建築潮流는 強한 個性의 表現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추구는 傳統을 繼承한 個性 表現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단은 世界建築樣式은 廢棄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價値있는 建築 즉 獨創的 建築을 社會의 集約的 욕망하는... 獨創性은 固有性과 自主性을 의미한다. 동시에 전통은 固有性과 自覺性을 그 要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는 1970年代에 서서 작업하고 있다 즉 現在性을 떠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建築表現에서 高麗나 朝鮮朝로 돌아갈 수는 없다.” “위의 입장에서 敢行한 摸索과 試驗은 바로 그대로가 완전하기는 힘들다. 거듭 試圖하고 다시 社會에 赤裸裸하게 投影하여 批判의 洗禮를 받고 나서야 所期의 目的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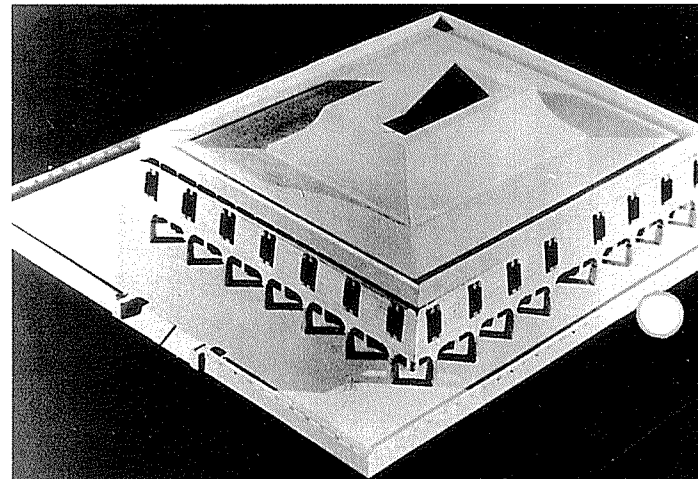
한국건축가협회는 1975년 1월 여의도에 건설계획이 세워진 「민족박물관건립에 즈음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예중흥과 건축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한다. 여기에서 네 사람의 의사가 발표되었다.

- ① 문예중흥과 건축 / 김희춘
- ②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 이해성
- ③ 민족박물관 건립 의의와 운영방향 / 김철준
- ④ 민족박물관과 표현상 전통문제 / 정인국

정인국은 ‘민족박물관과 표현상 전통문제’에서 “... 지금 韓國建築은 傳統的인 建築과 世界的 建築 사이에서 後者를 성급하게 좇고 있다. 同一化의 條件 즉 同水準의 所得, 工業化 組織 등이 아직 미흡한 狀況에서 이 길을 擇하는 경우 생기는 여러 矛盾에 注意를 돌릴 必要가 있다. 人類가 普遍的 建築에 到達한다는 뜻은 우리가 終局的으로 바라는 에큐메니한 建築으로 目標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이르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소모되는 법이며, 그런 關係로 韓國은 심한 過渡期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過渡期에 각자의 成功은 그 地方에서 어떤 時點에 經驗하고 있는 進化的 段階를 포착하는 建築家의 能力 즉 이 둘 사이에 均衡을 發見하는 能力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는 價値있는 建築 즉 獨創的인 建築을 社會의 集約的인 慾望으로 願하고 있다. 獨創性은 固有性과 自主



영남대학교 박물관 1층 평면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性을 의미한다. 創作面에서 固有性과 自主性이란 그 民族, 그 社會, 그 國家의 傳統을 基盤으로 할 때 비로서 얻어지는 것이다.”³⁾

이 프로젝트는 정변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앞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고뇌를 반복하지 않기위한 중론을 모색하는 가치로 보여진다.

정인국 교수의 후기작품 중에는 몇 개의 원형에 충실한 설계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0년대초인 이즈음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목조 건축양식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해 많은 사례들의 답사와 실측을 통해 그의 지적 관심은 이 원형들이 갖는 묘미에 빠진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그 해에 일지사에서 「한국건축양식론」으로 출판되고, 계속하여 역사건축에 대한 논술만도 「한국의 상류주택」, 「한국의 전통문제」, 「한국의 건축(세종기념사업회)」 등을 발표하게 된다. 건축 작업으로는 해인사 經板庫(경북 합천 /1972), 하와이 대학 한국학 센터(호놀룰루 /1972), 龍潭亭(천도교 성지 복원 /1975) 등의 설계를 통해 그 자신의 연구결과인 한국적 원형들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서 그는 문체의 이해를 원형과 구체적으로 접촉하므로써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호놀룰루 /1972)

이 건축은 홍익대학의 나상기 교수와 합작인 작품으로서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하와이대학으로부터 가장 한국적 원형에 충실한 건축으로 주문된 과제이었다. 정인국 교수로서는 우리나라 역사건축에 대한 연구가 결실을 맺어 「한국건축양식론」이 편찬되는 즈음의 일이기도 하다. 대학 구내에 자리잡게 되는 이 연구센터는 그것이 세워지면서 캠퍼스 내에 가장 유니크한 장소성을 만들고 있다. 설계초기에는 장소와 성격을 두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으나, 결국 한국의 역사문화를 실체로 전한다는 뜻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에 가장 원형(原型)에 충실한 각부의 비례, 요소의 구성, 장식성, 재료 등이 구사된다. 이 대학 안에는 한국학센터보다 조금앞서 일본학센터가 철골조로서 일본의 역사양식을 상당히 높은 질량으로 건설하였다.

한국학센터는 콘크리트 구조로서 팔각지붕의 연구소

본관과 다실(茶室) 기능인 팔각정이 배치되었다. 본관의 디테일은 중심포집의 원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엔타시스의 구성, 이에 따른 각부의 비례, 포작의 상세가 다 들어졌다. 연못에 걸치는 2층의 팔각정도 정자건축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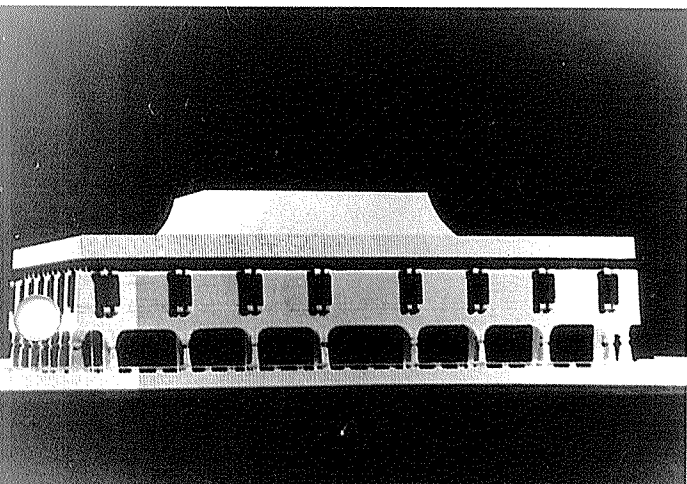
그의 한국적 조형의 의사를 가장 잘 밝히는 영남대학교 박물관 계획은 다시 역사원형에서 벗어나, 그 원용의 수단을 얻는다. 이 작품은 구현되지 못하였지만, 정인국 교수 자신이 가장 힘주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던 작품이기도 하다.

영남대학교 박물관(프로젝트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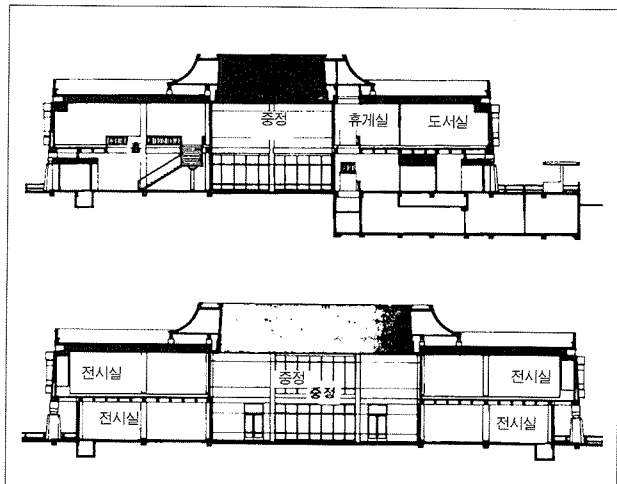
이 건축의 형태는 수평적인 비례 속에서 상하로는 크게 3분된 형식을 취한다. 제1분은 평면주변에 형성한 열주 회랑이고, 제2분은 열주에 떠올려진 2층의 몸체부분이다. 제3분은 분명한 엑센트를 갖는 지붕의 형식이다.

이 건축의 조형은 당시 전통계승의 방법이라는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건축계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던 경과에서 내용은 확실한 하나의 대답이라고 하여도 좋다. 기단, 기둥, 지붕의 삼부 구체(三部 構體)의 형식을 뚜렷히 표출시키면서 전체성 속에 각 요소 디테일의 특질이 한국적 이미지로 수사를 맡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적인 품격과 시각적 인상 사이에는 유연한 합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와 원칙들이 유지되고 있어 디자인의 단아함과 역동성을 같이 갖게한다. 이러한 전체의 3부 구성은 한국의 전통건축이 갖는 원형에 기인하는 것이다. 각 부는 전체의 조합요소이지만, 모두가 독립적이며 강한 조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필로티 형식의 허면(虛面)에 대한 2층의 괴체(塊體)의 대비, 열주의 강한 역양에 대해 잔잔한 2층의 수평면, 안장감 위에 구축되는 지붕의 긴장감과 같은 것은 상대적이며 이들은 적절한 관계성에서 상호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조형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시각에서 열주의 디테일, 흥예, 처마를 받는 돌출보의 머리 등은 전통의 원형을 의역하고 있다. 네 귀가 사절된 각주(角柱)

3) 민족박물관 건립과 표현상의 전통문제 / 문예진흥과 건축에 관한 세미나 / 주재발표



영남대학교 박물관 (프로젝트)



영남대학교 박물관 단면도

의 디테일은 아래로 단면적이 점차 커지는 화강석 불임 기둥이다. 여기에 홍예를 받는 부위에는 간략화된 주두(柱頭)의 상세가 있다. 평면은 48m×42m의 방형이며 그 중심에 24m×16m의 작은 중정이 공간의 핵을 이룬다. 이 중정의 주변으로 형성되는 전시실의 구성은 자연채광을 위한 고려이다. 이 중정의 존재는 외부로부터 실내에 이르는 주접근상 정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의외성을 만나게 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공간적 한정감 속에 외부 전시기능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서 이 건축은 한국성의 표정을 구체화하나, 그 건축적 구도는 여전히 합리주의에 귀속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 사고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은 한계에서의 사고이다. 다시말해 이 건축의 한국적 태도란 큰 시점에서 형태와 미시적 수사(修辭)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전체가 하나의 형식미에 통여시키는 수법은 단일 건물체로서는 유효하다. 다만 더 많은 전통적 국면들, 예를 들어 우연성을 포함한 현상적 미학, 더 다양한 관계의 공간미학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한국건축양식론

1970년대의 전통성을 위한 논술과 작품의 경향에서 정인국 교수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바친 박사학위 논문이 건축문화계에 공여된다. 1971년 문공부 문화재 위원에 피명되고, 1974년에는 공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그의 나이 58세의 일이다. 건축학의 博士學位는 舊制度로서 1973년부터 1977년까지는 교수직 이상의 사람으로서 연구업적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이수 과정 없이 논문제출만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구제도가 있었다. 이 구제도는 1977년에 폐지되고, 그 후부터는 정격의 입학시험과 과정수료 그리고 학위논문 과정을 완결하여야 한다. 사실상 이 구제도로써 학위는 형식적인 논문과 심사로 남발되기도 하였다.

정인국 교수 역시 뒤늦게 구제도로써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나, 이 논문은 한국건축역사학계로서는 비로서 얻는 본격적인 양식사의 정리이다. 그는 문화재관리국의 자료실을 다시 뒤지며, 대상 건축들을 다시 직접 답사, 실측하며 확인하여 논거의 자료부터 쌓아가야 하였다. 鄭寅國의 학위논문은 좀더 충실한 사례를 보완하며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4년」으로 출판된다.

이 책은 그때까지(해방후 25년, 일제 때의 일본학자들에 의한 한국 역사건축에 대한 저술이후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던 학계의 사정에서) 한국의 역사건축에 대한 사관(史觀)의 재정립이라는 데에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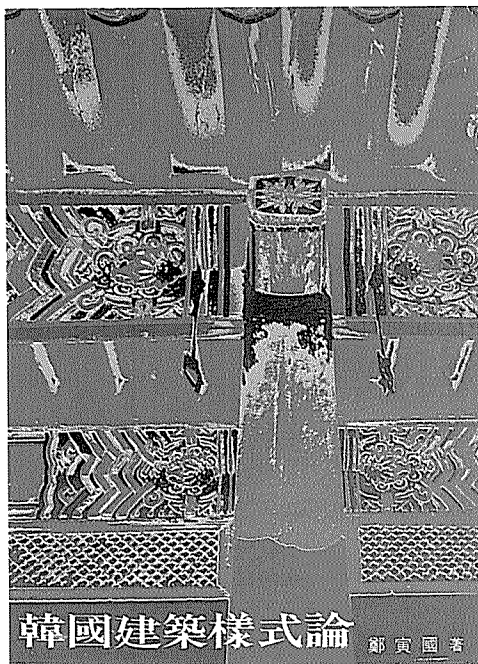
가 있다. 이 저서의 내용은 “한국건축의 발전의 연속성을 추구하며 한국건축의 과학적 가치를 입증하고자 한다.”라는 서문에서 시작된다. 1장은 시대와 양식에 대표될 현존의 사찰, 궁전, 서원 등의 건물을 중심으로 물적 증거로서 해설과 분석을 모았다. 2장은 사찰건축을 통해 배치와 불교사상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평지, 구릉, 산지의 입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다. 탑을 중심으로 한 축의 구도, 민간신앙의 영향으로 중심 건축의 운집과정을 밝힌다.

3장에서는 중심포 양식과 다포양식을 전기, 중기와 후기로 나누어 목구조의 연속적 발전과정이 정치·사회·경제의 조건과 어떻게 동조되는가를 말한다. 결국 그들의 결과가 민족문화의 형성체로서 고유성으로 이끈다. 여기에는 평면, 단면, 부재의 분석과 구법을 위한 자료를 동적으로 정리하여 뒷바침된다. 4장은 평면과 입면의 수열적 비례와 법칙성으로서 구성론이다.

평면의 정면과 측면 비를 2:1의 전형성으로 한국 목조 건축양식의 기본적인 조형의 특질을 말한다. 대량의 단면에서 주간이 제한받는 것을 가정하고 고주와 대량 단면비를 1:122의 가구역학적 비례를 찾는다. 이러한 수리적 조형론은 건축의 전모와 상세부분간의 일관된 관계성에서 한국의 건축이 조영되는 여러 사실들을 확인하여 준다. 5장에서는 조선 상류주택의 대표작들에서 주생활의 내용과 공간의 관계를 발전적 구도에서 모색한다. 박용숙씨는 이 저서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책은 적어도 대상에 접근한 하나의 시작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중요한 점은 건축학적 대상을 과거의 선입관에서 해방하려 시도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이미 선학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 소재(연구 대상)를 백지화하리므로서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선불리 내려지는 방법론 보다도 폭넓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더없이 소중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책은 빈학과 미학에 너무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점을 따로 지적하게 하는 것은 빈학과 미학 이른바 현상학적 미학이 유럽미학 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모험적 미학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전통건축의 예술의사를 규명하는데에 있어서 너무 그 쪽에다 의지한다면, 자칫하면 주체상실의 오류를 다시 한번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완성된 하나의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체계 이전의 문제를 우리에게 생생히 하리만치 보여주는 것이며, 그로 하여금 한국전통건축의 올바른 체계를 유도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⁴⁾



4) 서평 / 박용숙 / 공간 1974년 10월호